

코로나서 광주형일자리까지...위기때마다 빛난 '연대 리더십'

민선7기 반환점 맞은 이용섭시장

민선 7기 반환점을 앞두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놓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위기 속 연대 리더십'이 전국 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적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구축과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시민 공론화를 통한 공사 착공, 그리고 막판 결렬 위기에 놓였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회생, 광주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역사회에선 이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고분양가 제약 등으로 꼬여버린 민간공원 사업 등 민감한 지역 현안을 도 한번 '연대 리더십'으로 풀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지역 내 갈등을 초래했던 각종 현안사업이 민선 7기 들어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 같은 행정 성과를 배우기 위해 대구시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민선 7기 사업성과 중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단연 백미로 꼽힌다.

올해 초만 해도 노동계의 사업 불참선언으로 좌초 위기를 맞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이용섭 시장의 적극적 중재 노력으로 극적 타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 15일에는 정부의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공식 선정돼 수천억원대의 투자 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 시민 공론화로 풀어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성과

군 공항 이전·어등산 관광단지 조성·민간공원 사업 후반기 과제

이 시장은 노동계와 갈등 속에서도 "노동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강한 연대의식을 거듭 강조했고, 이는 노동계의 마음을 돌려 놓는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20년 가까이 지역사회를 찬반 논쟁으로 갈라놓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도 '연대 행정'의 결과물이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들어 "2호선 건설 여부는 시민 뜻에 맡기겠다"며, 2018년 시민 공론화 모델인 '속의 기반 주민 참여' 방식을 도입해 공사착공을 결정했다. 시민연대를 기반으로 한 이 사례는 이듬해 정부의 갈등관리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이 시장의 행정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시장은 취임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제1호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타 지역에 지정됐던 경제자유구역마저도 실적부진 등으로 취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포기하지 않고 취임 2년만인 지난 3일 첨단 3지구와 빛그린 국가산단 등 광주 4개 산단 4.371㎢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지정효과로 1조 6000억원 규모의 기업 800개 유치와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벌써부터 지정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마땅한 입주기업이 없어 천덕꾸러기가 될 뻔 했던 광주지역 내 일부 산단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게 산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광주의 핵심산업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사업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시장은 취임 후 광주가 미래산업 불모지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핵심산업으로 AI(인공지능)를 추켜들었다. 다른 광역단체들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을 요구했지만, 광주만 유일하게 미래 산업에 눈을 돌린 것이다.

당시 일부에선 "광주가 무슨 인공지능이냐", "뜯구름을 잡는다"는 등 비아냥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이 시장은 특유의 독심으로 정부를 설득한 끝에 AI사업을 1조 원 규모의 정부지원 사업으로 만들어 냈다. 현재 국내외 AI핵심기업의 광주 이전이 줄을 잇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근 광주를 방문해 "AI 중심도시 광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대표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 이 시장의 '리더십'은 '코로나 19'라는 유례 없는 위기 앞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광주는 대구보다 먼저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발 빠르게 전국 첫 민간 전문가 주도 방역시스템 등을 구축한 덕분에 정부도 인정하는 모범방역 도시로 거듭났다.

이 시장은 '광주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하자, 코로나 19 대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구시와 '병상연대'를 선언해 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기정 정무수석, 정승일 산업통상부장관, 이용재 도의회 의장, 김종갑 한전사장, 신정훈·김원이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린 블루에너지 비전 포럼에서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손뼉맞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에 깊은 울림을 주기도 했다. 병상연대는 '인연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전 국민에 각인하는 효과까지 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주의 병상 나눔을 최고의 행정으로 꼽았다.

이 시장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눔과 연대정신으로 똘똘 뭉쳐 해결한 광주시민의 DNA는 코로나19 등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광주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민선 7기 광주시 행정 곳곳에는 광주만의 따뜻한 연대 DNA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해상풍력발전·한전공대 개교 적극 돕겠다"

강기정 정무수석, 전남도 '블루 에너지 비전포럼' 참석

정부가 민선 7기 전남도 역점사업인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성과와 한전공대의 2022년 정상 개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전남을 방문, 지난해 7월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경제투어 후속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전남도는 블루 에너지·투어·바이오·트랜스포트·농수산·시티 등 6대 프로젝트로 구성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비전을 선포했고, 문 대통령은 전남 발전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첫 행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 전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블루 에너지 비전포럼'이었다.

전문가들은 블루 에너지의 핵심인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방안'과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을 했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공대)는 '에너지 신산업 왜 전남이 최적지인가'라는 기초 발제를 통해 서해안 그린에너지 벨트 특구 지정을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도입, 그린 요금제 제도 시행 등을 통한 '전남형 그린 뉴딜 사업'을 제안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전남도는 '그린 뉴딜'과 '전남형 상생 일자리'를 연계하고, 친환경 그린 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한국판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한전공대가 2022년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수석은 "호남의 원인이던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고배를 마신 점은 아쉽지만, 지속적으로 대항연구시설 구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고 함께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목포 신항만을 방문,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 경제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정원 SK E&S 그룹장, 진중욱 두산중공업(주) 신재생에너지BU장 등 풍력산업 관련 기업인들은 강 수석 등 정부 측에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정 해역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정부 차원의 국산 기자재 사용 확대 ▲그린뉴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강 수석은 "(전남도와 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해 전남의 블루 에너지 비전을 실현하고,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318) 한국전쟁 70년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금방이라도 봄이 온 듯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던가 싶게 다시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불안감이 밀려든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어쩌면 남북간 긴밀한 소통과 만남으로 새로운 지평이 열리리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

이고 지고 길 떠나는 절망스런 피난민 몸짓

운 마음이다.

이수익작가(1918-1990)의 '6·25 동란' (1954년 작)은 이 시기에 각별하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함경남도 출신으로 평양사범학교와 동경제국미술학교에서 양화를 공부했던 작가는 전쟁시기 단신으로 월남했고, 국방부 정훈국 중공화기 단에서 활동하면서 전쟁기록화를 그리기도 했다. 1953년 중공화기단 전쟁미술전에서 '야전도'라는 작품으로 참모총장상을 받는데 이어 그린 이 작품은 민족적 수난인 한국전쟁 중 피난길의 남녀노소를 서사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리아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가장, 피난살이 집터미 속에서도 핏덩이에게 쫓을

물리고 있는 모성은 멀리서도 눈에 띄고, 언제일지 모르는 개화에 대비해 책가방을 둘러매고 책보자기를 힘겹게 들고 가는 소년의 모습, 장담과 키우던 강아지도 가족의 일원이 되어 동행하고 있는가 하면 머리에 이고 등에 짊어지고 길 떠나는 피난민들의 몸짓이 절망스럽다.

전후에 그려진 가장 큰 규모의 전쟁화로 꼽히는 이 작품은 특히 인물구상이지만 얼굴표정은 알아볼 수 없게 단색으로 묘사함으로써 피난민 행렬의 비극적 상황을 입체파식으로 구성하여 강조한 듯하다.

세계사에 보기 드문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를 작품으로 기록하



이수익 작 '6·25 동란'

나 승화시킨 화가가 희소한 상황에서 이수익작가는 한국전쟁사의 주요 작품으로 대표할만한 작업들을 이어간 작가로 꼽힌다. 작가는 '6·25 동란' 외에도 '구두 닦이 소년', '폐허의 서술', '전선야곡' 등의 그림을 통해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의 아픈 상흔을 절절하게 되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몰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